

운전중 휴대전화... 버스기사 안전불감 '아찔'

광주 시내버스 승객 "계기판에 스마트폰 놓고 동영상 봤다" 주장

동료와 잠담 등 무개념 운전 '불안'... 강력처벌 등 대책 마련 한목소리

세월호 침몰 여파로 사회 곳곳에 만연된 안전불감증을 바로 잡자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무개념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아찔한 곡예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내버스의 경우 사고가 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 등 '딴짓'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회사원 최모(39·나주시)씨가 탄 시내버스는 지난 밤 9시50분께 광주시 남구 봉선동 주월중학교 앞 도로에서 적색 정지신호를 받은 뒤 멈춰섰다. 때마침 '봉선 27번'

시내버스도 옆에 나란히 정차했다.

맨 앞좌석에 앉아 있던 최씨는 나란히 정차한 '봉선 27번'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본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운전기사가 위험천만하게도 계기판에 스마트폰을 올려놓고 게임동영상을 보고 있었던 것.

당시 시내버스엔 10명 안팎의 승객이 타고 있었지만 운전기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게임동영상을 계속 지켜봤다는 게 최씨의 주장이다.

최씨는 "스마트폰이 계기판에 올려져 있는 것을 보니, (시내버스가) 달리는 중에도 스마트폰을 본 것 같다"며 "운전기사가

가 큰 사고를 낼 것 같아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최씨의 민원은 국민신문고에서 광주시를 거쳐 북구로 이첩된 상태다.

이 같이 곡선 도로를 달리는 위험한 순간에도 일부 운전기사들이 휴대전화를 놓지 않거나 동료 운전기사와 잠담을 나누는 등 무개념 운전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단속 담당공무원들은 운행중인 시내버스 안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어 위험한 운전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운

전 중 휴대전화 사용중 적발된 시내버스 운전기사는 고작 2명 뿐이다.

일부 운전기사들의 무개념 운전엔 단속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까지 겹쳐 애꿎은 승객들만 불안에 떠는 등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사고발생 비율이 정상 운전 때보다 6~8배 가량 높아지고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반응 속도도 0.7~0.9초 정도 늦어진다"면서 "치명적인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에 대한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30 해질녘 22:22
해짐 19:47 달짐 09:41

후덥지근한 여름밤

아침까지 비온뒤 그치겠으나 내일부터 다시 장맛비가 예상된다.

지역별 날씨 (℃)

광주	비	21/29	보성	비	20/27
목포	비	20/26	순천	비	22/27
여수	비	21/25	영광	비	21/28
나주	비	21/29	진도	비	21/27
완도	비	21/27	전주	비	22/30
구례	비	21/28	군산	구름많음	21/28
강진	비	21/27	남원	비	21/29
해남	비	21/28	홍산도	비	20/25
장성	비	21/28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서해	남해	남동	0.5	남동	0.5
남해	남해	북동	0.5~1.5	남동	0.5~1.0
남해	서부	북동	0.5~1.0	남동	0.5
남해	서부	남서	1.0~2.5	남서	1.0~2.0

생활지수

식중독	47
운동	10
빨래	20

물때

		밀물		썰물	
목포		05:03	10:07	17:16	22:18
	여수	11:51	05:40	00:00	17:45

주간 날씨

17(목)	18(금)	19(토)	20(일)	21(월)	22(화)	23(수)
☁	☁	☁	☁	☁	☁	☁
22/28	24/29	24/31	24/31	24/32	24/32	24/31

광주지법 세월호 3차 공판서 공개된 카톡·메시지보니

학생 "다들 사랑해...마지막 동영상 찍었어"

승무원 "노인네(선장)는 핸드폰하고 있어"

세월호 침몰 당시 승무원, 승객이 각각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15일 법원에서 공개돼 또 한 번 분노를 자아냈다.

세월호 침몰 이후 3등 항해사 박모 씨가 선배 2명과 나눈 카카오톡 내용을 통해서, 이준석 선장의 무책임한 선상 근무 태도가 드러났다.

박씨는 "선장님이 갑자기 말도 않고 방에 들어가셔서 기관장님이 '그 노인네 어디 갔어'라고 묻고는 방에 가보니 핸드폰을 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카톡이나 게임 아날까 싶다"고 선배에게 말했다.

이 선장의 휴대전화에는 게임 애플리케이션 8개가 깔려 있었지만 실제 당시 게임을 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단원과 학생 등 승객들의 카카오톡 메시지는 침몰하는 배 안의 공포와 승무원들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했다.

"연극부 사랑함. 다들 사랑해. 진짜 사랑해. 애들이 진짜 사랑하고 나는 마지막 동영상 찍었어"(오전 9시 10분 마지막 메시지 발송), "저 지금

방안에 살아있어요. 지금 구조 중인데 저희 학교 학생 말고 다른 승객들부터 구하나라요"(오전 10시 7분), "너무 무서워. 캐비닛이 떨어져서 옆방 애들이 깔렸어. 무서워"(오전 10시 12분) 등 닥쳐올 불행을 예감한 학생들의 메시지는 방청객들을 침묵의 심연으로 밀어넣었다.

구조된 한 학생의 메시지는 객실에 까지 물이 찬 상황을 떠올리게 해 법정은 숙연해졌다.

"물이 막 들어오는데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래요. 저희는 가만히 있었는데 남자들은 못참고 뛰어내리기도 한 것 같아요. 구명조끼를 입고 물에 떠 있으니 뒤에서 친구들이 밀어주기도 하고, 물이 거의 목 밑까지 차서 밑에 있던 애들은 아예 잡겨서 목мок고 그랬어"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영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3차 공판에 이어 오는 22일 오전 서증조사를 마친 뒤 같은 날 오후 세월호에 탔던 일반인 승객 등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더위 탈출 야간 산책 낮 기온이 31도를 기록한 15일 광주 북구 문흥근린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한 낮 무더위를 피해 야간 산책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차 트렁크에 담배 불똥 떨어뜨린 범인 잡아주세요"

"문 안열어 준다고 남편 투신한대요"...구조 요청 등 강력계 형사들 '묻지마 신고' 골머리

살인범과 강·절도·성폭행 등 강력 사범을 붙잡아야 할 형사들이 사소한 민원성 사건 해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짧게는 2~3일 길게는 1주일에서 한 달 이상 잠복근무를 하고 때로는 장거리 출장을 다니며 '강력사범'을 쫓았던 강력반 형사는 이제 '추억'이 태버렸다. 과거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비실에 접수됐을 법한 사소한 사건이 하루가 멀다고 경찰서에 '정식 접수'되는 등 민원성 일감이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광주서부경찰서 형사과에는 차량 손괴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자 최모(35)씨는 "4~6일 사이 서구 풍암동 자신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뒀는데 누군가 트렁크에 담배 불똥을 떨어뜨렸다"라며 "CCTV 등을 뒤져서 꼭 범인을 잡아달라"고 경찰에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광주광산경찰서 형사과에도 비슷한 피해가 접수됐다. 진정서를 통해 피해 신고를 한 김모(17)군은 "지난 6월 27일 오전 10시~오후 3시 사이 광산구 소촌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세워뒀는데 누군가 넘어뜨리는 바람에 안장 왼쪽 부위가 찢고러졌다"라며 조속한 검거를 요구했다.

지난 5월에는 다소 '황당'한 피해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서구에 사는 한 40대 주부가 길에 세워둔 자전거 바퀴에서 바람이 빠져나갔다고 신고해온 것이다. 김씨(40)씨는 경찰에서 "아파트 상가 옆 자전거 보관대에 자전거를 세워뒀는데 누군가 뒷바퀴 타이어 고무 뚜껑을 열어 버린 것 같다."고 진술했다.

심지어 최근 북구에서는 현관 문을 사이에 두고 전화로 부부 싸움을 하던 중 남편이 아파트 복도에서 뛰어내리겠다고 하자 전화를 끊고, 경찰에 자살 구조 신고를 한 부인도 있었다.

북부경찰 관계자는 "부부싸움 도중 문을 안열어주니까 남편이 뛰어내리겠다고 하면, 가만히 문만 열어주면 되는 데..."라면서 "예전엔 이웃간 사소한 다툼이 발생 할 경우 자체 적으로 해결하거나 웃고 넘어갔을 일들이 자주 경찰 등 공권력에 의존하게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기발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기복중알카 특수가발 별매(윈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입X,핀X

M.H.타사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大山프리모가발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무료견적 시공상담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칠만표방수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공전 → 시공후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땀쟁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산구 381-0061 전라남도 목포(삼화) 274-5987
서구 352-7788 목포(건영) 243-7463
남구 676-7719 순천 744-8605
북구 512-7998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02-454-7722
기타지역 080-777-0555